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연구회

제4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in 천안

– 쟁점 토론 –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의 협력 방향”

2017. 5. 26(금)

구자인(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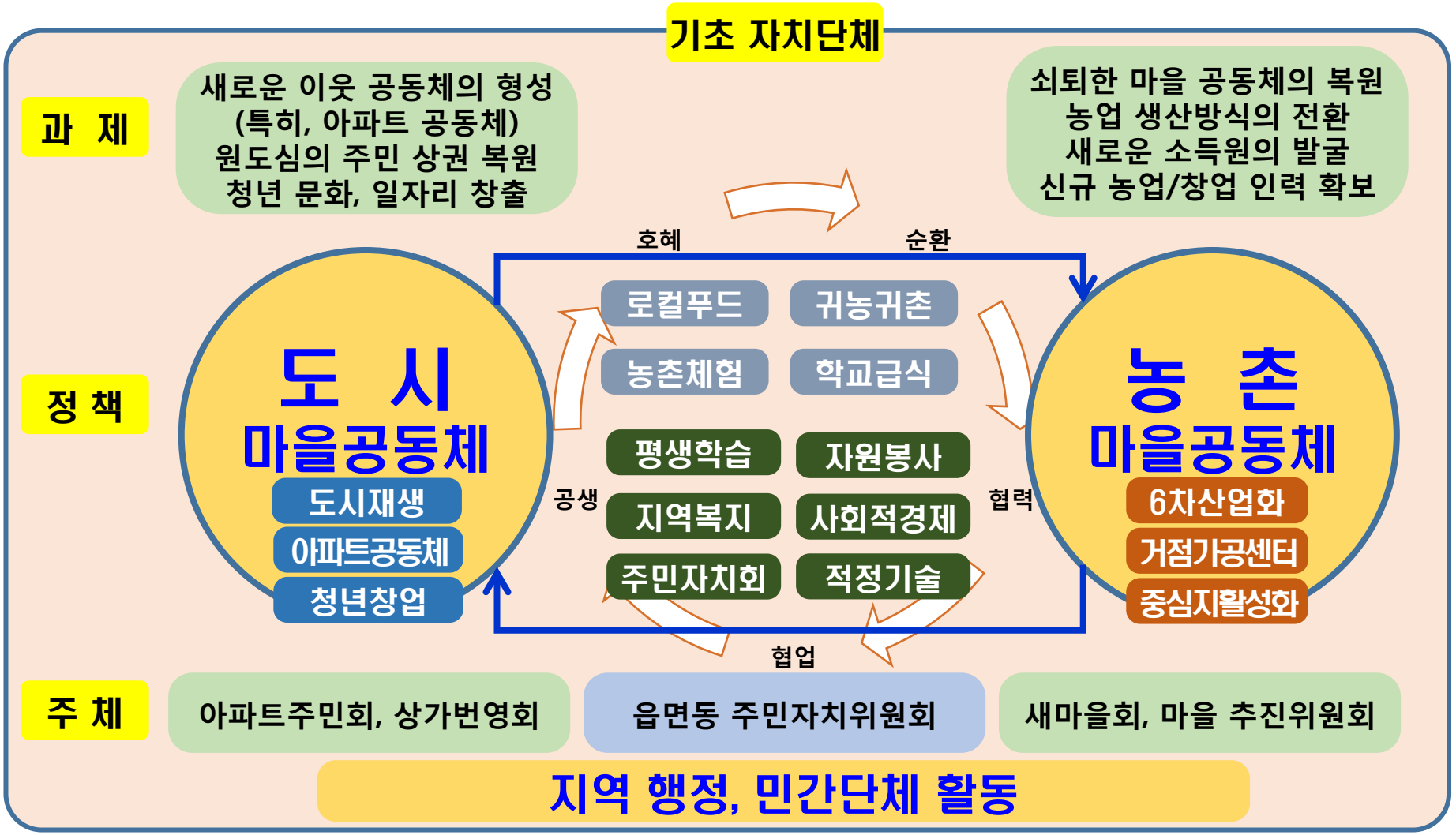
오늘의 주제 : "도시형 마을과 농촌형 마을의 협력방향"

"도시 마을은 인근 농촌 지역의 마을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 확대, 공동주택 거주비율 급증 등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이 낮아지고 정체성도 매우 약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3만 규모의 청양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 확대로 공동체가 계속 붕괴되고 있는 반면, **읍과 동 지역 마을**은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도심 공동화와 상권 쇠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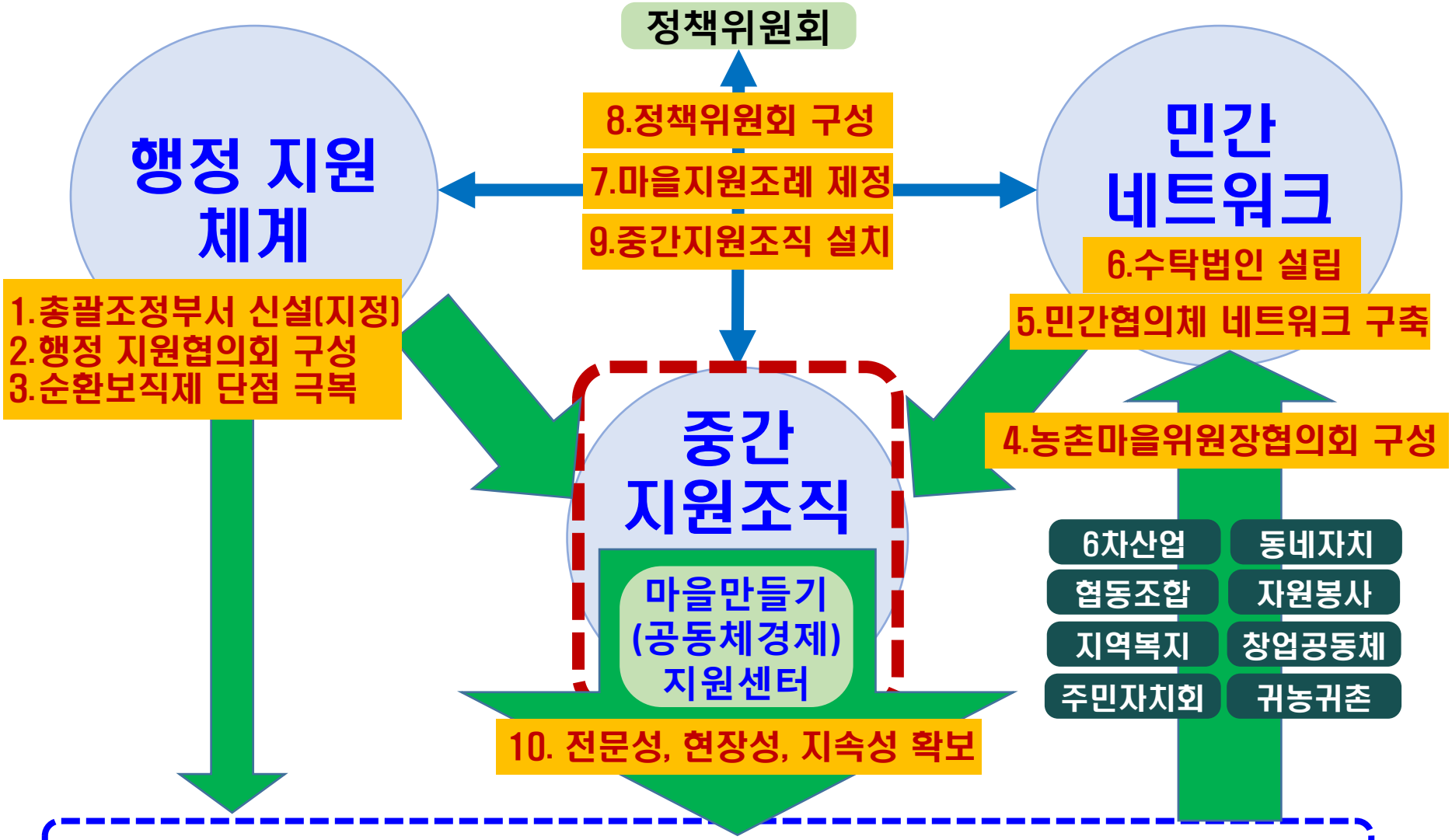
농촌 마을이나 도시 마을이나 현상은 다르지만 서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농교류가 **하나의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서로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여지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귀농귀촌,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평생학습 동아리, 자원봉사 등의 영역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순환 관계 구축 _ 도농통합형 마을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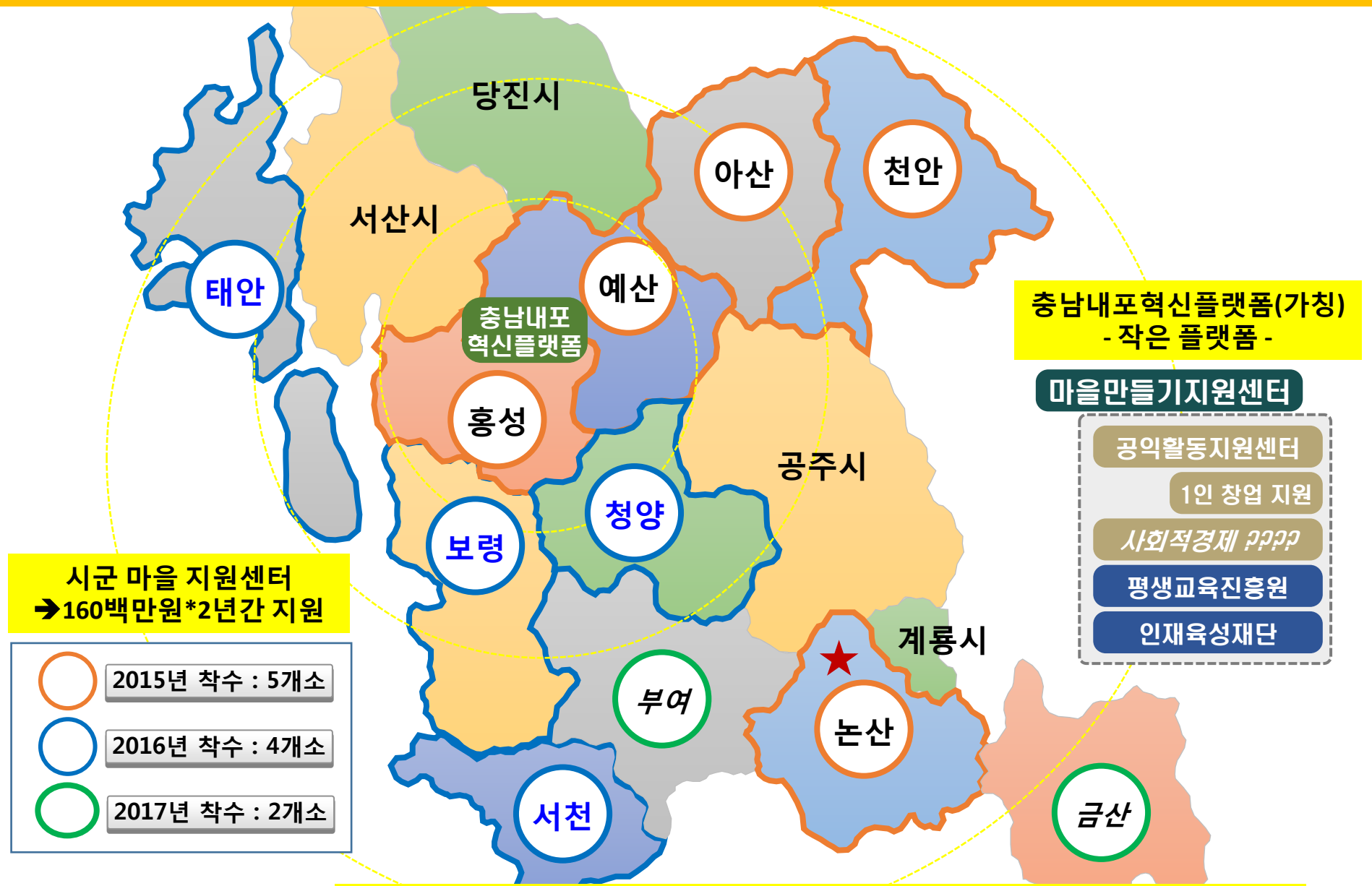


➔ 다양한 정책 사업과 활동이 전개중. 상호연계와 민간/행정의 추진역량이 가장 중요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의 10대 핵심과제



충남 시·군 지원센터 추진상황 _ 2017년 3월 현재, 11개 시·군 추진중



충남내포혁신플랫폼(가칭)
- 작은 플랫폼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공익활동지원센터
- 1인 창업 지원
- 사회적경제 ????
- 평생교육진흥원
- 인재육성재단

시군 마을 지원센터
➔160백만원*2년간 지원

- 2015년 착수 : 5개소
- 2016년 착수 : 4개소
- 2017년 착수 : 2개소

➔ 시군별 특성에 맞는 길을 지역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쟁점토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

6대 쟁점 : 임의로 도출된 쟁점이고, 이외에도 많을 수 있습니다만…

(1)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의 성격, 관계

(2) 도농협력을 위한 민관협치의 조직 체계 등을 중심으로 추출

토론 방식 : **1인당 1회 1분** 제한. 연속 2회 발언 자제. **최소 1회** 이상 발언

(1) 6대 쟁점에 대해 각각 **10분 정도**로 토론

(2) 각 쟁점별로 ‘동의 ' , ‘반대’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의견 제시

- 중간 영역이 아니라 ‘**굳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관점에서

(3) 슬라이드 화면에 기록을 남기고 함께 보면서 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보

-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차이)’**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존중

(4) 각자 배포된 A4용지와 스티커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돌아가실 때 제출

- 행사 결과는 웹진(뉴스레터)에 공개

[쟁점토론1]

“도시형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농촌 마을보다 더 힘들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7명)	반대(13명)
① 도시는 마을도 없다. 특히 아파트는… ② 주민들이 너무 많고 잘 모이지도 않는다. ③ 이사도 너무 자주 간다. 활동가가 일할 만하면 떠나는 경우가 많다. ④ 살고 있는 주민 외에도 출퇴근하는 직장인, 상인, 학생 등 구성원이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의견 모으기도 힘들다.	① 생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 경제적 여유가 많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편하다. ② ‘일할 수 있는’ 활동가(자원봉사자)가 농촌보다 훨씬 많아서 유리하다. ③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대화와 소통 ' 이 용이하여 가능성이 더 높다.
• 도시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도시적 개인주의와 삶의 패턴으로 인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한계 있음 • 개인이 속한 이익집단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모이기 힘들며, 건의는 많지만 해결을 위한 모임은 여유가 없어 어려움 • 관심분야의 다양성으로 공통의 관심사 제시 어려우며, 주민 모두를 파악하고 있는 리더의 부재	• 가구간 거리가 멀고, 동질성은 있지만 폐쇄적이고, 고집이 세며, 계층구조가 남아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공간적으로는 농촌이지만, 주민들은 도시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아 어려움은 도시와 동일함 • 도시-남성들 활동 다수, 능동적, 공통의 목적으로 자발적 모임 형성 • 농촌-여성들 활동 다수, 수동적, 남성 중심적 결정, 비구체적인 계획 추진

[쟁점토론2]

“도시농업 활성화(식물공장 등)는 농촌의 농산물 판매를 방해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1명)	반대(8명)
① 도시민들이 농산물 구입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어 농촌에 불리하다. ② 도시민들이 농산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이 말만 많아질 것이다. ③ 이제는 굳이 도농교류 체험을 위해 농촌을 방문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① 농민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어 오히려 농산물 판매가 촉진될 것이다. ②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③ 농민들이 도시농업을 지도하면서 노인 일자리도 늘고 도농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 가격경쟁,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농촌보다 도시가 유리함 • 상대적으로 기술력을 배우는데 농민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의 경쟁력이 낮음	• 도시농업의 발달은 농촌 기술경쟁력 향상에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임 → 도시농업과의 강력한 결합 필요 • 도시농업이 도농교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쟁점토론3]

“대학생 농활팀이 마을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 없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0명)	반대(14명)
① 농사에 도움도 안되고 귀찮기만 하다. ② 예의도 없어 어르신들 민망할 때가 많다. ③ 농촌봉사라면서 사진이나 찍고 낯내기만 하더라. ④ 뒷바라지 한다고 더 힘들어지더라…	① 외로운데 마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② 어려운 농사일도 도와주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③ 젊은 대학생들에게 농촌 체험이라도 시켜야 미래의 소비자가 될 것이다.
• 단순한 방문이 아닌 기술을 알려주고 공유할 수 있는 농활로 방식의 개선 필요함	• 노동력 제공 뿐만 아니라 세대간 교류, 재능기부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서 농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쟁점토론4]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은 농촌 마을에 도움이 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10명)	반대(5명)
① 정보통신 발달로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 농산물 판매에 유리해지고 있다. ② 도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연결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 ③ 마을방송도 무선으로 하고, 축사관리도 편해져 농촌 생활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① 기업의 또다른 돈벌이 수단이라 이것도 ‘돈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②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도움되고 대부분의 주민들과 관계 없다. ③ 사람들이 얼굴 맞대고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더욱 줄어들어 오히려 마을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
•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기술임이 분명함	• 투자대비 효율성 한계. 기술을 만들어 놓고 효과를 내기 위해 주민에게 무리하게 강요하는 결과 나타날 수도.. 농촌 현황,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과정상의 한계 있음 • 기술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일부 주민에 국한되며, 보조금을 제외하면 시장 경제성이 없음 • 농민들이 활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함(필요 수준에 맞는

[쟁점토론5]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7명)	반대(4명)
① 도시재생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옥상옥’ 조직이 되고 갈등만 심해진다. ③ 아직 역량은 부족해도 권한을 대폭 넘겨주고 훈련할 기회를 줘야 한다.	①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성도 약하고 주민자치 역량도 없기 때문에 안된다. ②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면 논란만 많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③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해줄 필요 있음 • 읍면단위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의사결정 기관이 되어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공모로 구성 변화 필요(현재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 한계 있으므로 공개모집이나 역량강화 등으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필요함(주민 대표성을 갖춘 분 – 단순히 이장이거나 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론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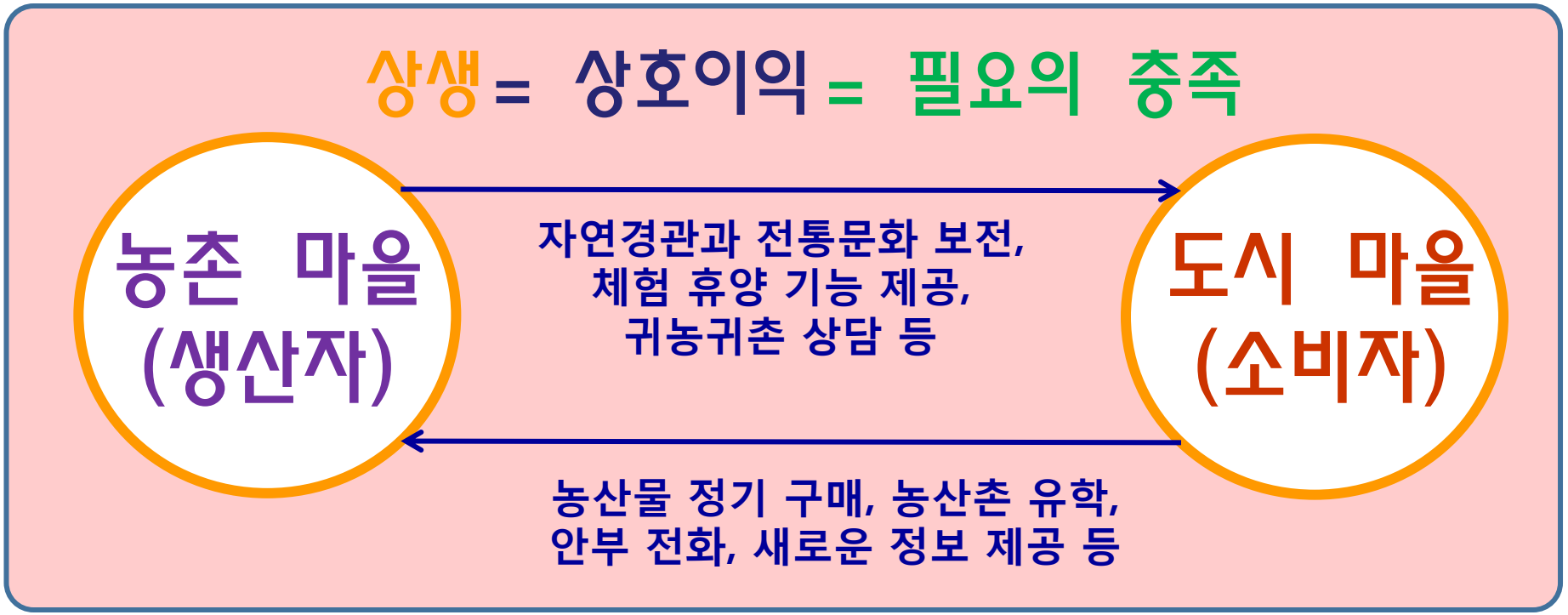
"행정 부서에 총괄하는 지역공동체팀을 신설해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16명)	반대(2명)
① 도시 마을이나 농촌 마을이나 성격이 유사하기에 한 부서에서 총괄조정해줘야 한다. ② 서로 협력하면 장점도 많기 때문에 신설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③ 행자부에서 인력 1명도 증원해준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①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은 성격이 너무 달라 한 부서에서 총괄조정할 수 없다. ②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의 사업이 섞이게 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③ 행정의 현재 역량으로 볼 때 오히려 '옥상옥' 조직이 되기 쉽고 총괄조정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 중앙부처의 사업은 구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통합적 구조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인원수를 더 늘려준다면 통합팀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목적이 다르므로 1개의 팀에서 총괄조정하기 어려우며, 효율성 한계 있음

기본방향(활동) :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만남

➔ 만나는 당사자 상호간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도농 상생'이란 이름으로 농촌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도시민들을 위한 휴양공간 제공'이란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농촌관광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가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조차 통제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농민의 삶이 힘들어진 것은 결국 '도시와 공업'을 중시한 정책의 책임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농촌 주민들의 책임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이제는 도시민들이 '백 번 양보'해야 합니다.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은 '죄송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농촌 살리기에 도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인간적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월별 운영계획(안) _ 시군 협력을 통한 공동 개최

1차	2.24	• **종합**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의 만남	워크숍
2차	3.31	• **홍성군** :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홍성군지원센터 개소식
3차	4.21	• **금산군** : 금산군청+지역활성화센터 • 쟁점 : 농촌 마을과 중심지활성화 연계	4.20~21 3농혁신대학 연계 진행
4차	5.26	• **천안시** :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 쟁점 : 도농통합시의 마을간 협력방향	
5차	6.30	• **보령시** :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의 협업과 지역네트워크	
6차	7.28	• **서천군** : 서천군농촌마을지원센터 • 쟁점 : 농촌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과 운영	
7차	8.25	• **예산군**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 쟁점 :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	
8차	9.29	• **아산시** :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 쟁점 : 중간지원조직의 행정 직영과 민간위탁	10.3(화)~6(금) 추석 연휴 (변경 검토중)
9차	10.27	• **공주시** : 공주시흥미진진나드리센터 • 쟁점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중간지원조직	협의 필요